

# 진실의 힘

TRUTHFOUNDATION

[칼럼]

## 우리는 연결되어야 한다

: 생물학자의 눈으로 본 코로나 위기

| 이한솔 후원회원 · 생명과학 박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실험실에서 박사 학위를 득했다. 들꽃과 새, 벌레에 이끌려 생물학을 시작했으나 돋보기를 너무 가까이 들이댄 나머지 전공 분야가 단백질 분자구조 연구에 가 닿았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탐구를 계속하려 노력 중이다.

생물은 주변 환경과 여러 다른 생명체와의 연결을 통해 살아간다. 인간이라는 생명체 또한, 세포라 불리는 수조 개의 개별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생명체인 우리에게 있어 연결의 끊김이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흔히 지금을 ‘언택트 시대’라 부른다.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만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능해진 보다 진보한 세상. 가까이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마주하고 목소리의 떨림을 주고받던 낭만이 점점 사라지고,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통해 얼굴을 보며 스피커 진동판을 통해 전해지는 음성을 듣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진정 인류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불행이 아닌가 하는 철학적인 의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 고전적인 낭만들이 사라지게 두지 않으려 끊임없이 애써왔다. 우리의 삶은 만나고 연결되어야 살아지기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도래한 언택트는 진보를 좇는 인류의 의지로 얻어낸 것도 아닌, COVID-19라 불리는 신종 질병이 초래한 못(un-) 만남(-tact), 두려운 단절과 죽음의 시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가 세계적 재난이 되어 모든 만남을 끊어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SARS-CoV-2)는 아이러니하게도 숙주인 인간 사이 만남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다. 신종 바이러스 SARS-CoV-2의 모태인 코로나바이러스는 본래, 호흡기를 통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 기침과 재채기를 동반하는 ‘감기’라는 증상을 매개로 끝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옮겨가며 인간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왔다. 그러나 여러 숙주를 오가며 적응에 적응을 거듭하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이 치명적인 형태로 몇 번 변모했고, 이제는 인류사에 전혀 없이 강력한 단절을 초래하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어있다.

### 만남과 연결을 통해 생존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가짜뉴스

바이러스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끊임없이 숙주를 옮겨 다닌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터전은 동물의 세포 내부이다. 숙주의 세포 속에서 충분한 복제를 마친 후 숙주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속히 자신과 잘 맞는 새로운 숙주를 만나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곳을 벗어나 숙주와의 연결이 끊긴 채로 시간이 흐르면 바이러스는 이내 분해되어 사라지고 만다. 현 숙주의 몸을 떠난 뒤 말라 죽지 않고 운 좋게 새 숙주의 호흡기로 들어가 세포에 가 닿더라도, 새로 만난 숙주가 하필 다른 종의 동물이라면 바이러스의 생존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다 간혹 미세한 유전적 차이를 통해 새로운 동물종에 대한 적응력을 갖춘 개체가 살아남으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들이 생겨난다.

평범한 감기 정도의 증상을 일으키던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높은 치명성과 전염성을 동시에 갖춰서 벌어진 지금의 끔찍한 사태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보다 더 오랜 기간 수많은 만남과 연결 속에서 실패를 딛고 일구어낸 유례없는 쾌거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쾌거는, 높은 체온을 가진 박쥐의 몸속에서 강한 생존력을 획득한 일부 코로나바이러스가, 또 다른 새로운 변이를 통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형질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추론이다. 한편으로 유전자 서열분석 결과로 추정컨대, 알려진 것과 달리 최초 발생지가 우한이 아닐 가능성이 나, 박쥐 외의 다른 중간 매개체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개인의 인상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심지어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가 생체무기 개발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심은, 이미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어 최초의 감염원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관심 밖으로 밀려난 현재 시점에서는 철 지난 음모론처럼 느껴질 정도임에도 여전히 종종 대중들 사이에 머리를 디민다. 그 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차단에 별 도움이 안 된다거나,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거나, 헤어드라이기로 옷을 말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거나 하는 따위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가 손과 입을 통해 꾸준히 눈으로 귀로 전해진다.

이런 류의 가짜뉴스에는 그 뒤에 “저명한 과학자” 혹은 “해외 유명 연구기관” 따위의 수식이 따라붙어 사람들을 더 혹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이 그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전문가라고 언급된 미지의 존재들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고 믿어버리는 것은, 해당 명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논문에 접근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과학자” 혹은 “연구기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립된 인상도 한몫한다.

### **만남과 연결을 통해 발전하는 과학, 그리고 진실**

하지만 과학이야말로, 고립이 아닌 수많은 연결과 만남을 통해 발전한다. 태권브이 카프박사 같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연구에 미쳐 있는 괴짜 과학자 몇몇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곤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각자의 영역에서 알아낸 작은 깨달음을 재빨리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스스로도 다른 이들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과학자 집단에 속한 개

개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다. 과학연구는 그렇게 연속적인 만남과 연결을 통해 끊임없이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과정이다.

바이러스가 수많은 숙주 사이를 오가며 진화했듯, 연결과 만남은 변화를 낳는다. 학계의 정설을 부정하는 결론이 제시되더라도,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관찰내용과 실험설계가 신빙성 있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는 동료집단의 검증을 거쳐 얼마든지 기존의 학설을 뒤집을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참신한 연구 결과라 하더라도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비판받고 재고될 수 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과학을 하는 모두가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진실이라 믿고 있던 개념에 대해 일어나는 변화를 언제든 인정하기로 철저히 합의했다는 데에 있다. 과학에서 정답이나 진리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자들은 그저 인류의 지식이 거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뿐이다. 그 합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주장이 정답임을 강변하거나, 권위를 근거삼아 다름을 쉽게 틀림으로 속단하고 무시하는 일은, 소중한 연결고리를 끊고 홀로 외로워지겠다는 어리석은 외침이다.

과학 연구에서는 진실이라 생각되는 명제를 진실이라고 단정 짓는 것,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다가가는 접근법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맞는 이론”, “되는 기술”이라는 맹신 아래 강행된 연구 프로젝트는 꽤 오랜 노력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오류가 드러나게 되고, 연구 책임자 개인의 커리어는 물론 그 맹신에 희망을 걸었던 모두에게 시간적 물질적 타격과 좌절을 안긴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자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감각이 주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연결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결되어 수시로 소통하는 타인의 시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개인이 오류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중심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학연구의 속성은 자연의 법칙 혹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연구대상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끊임없이 다투고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해간다는 점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의 학문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주관적인 견해,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관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분야이든 혹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든, 진실과 해답에 다가서는 방식에서 방법론으로서의 과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불리 진실이라 규정하기 전에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다각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작금의 코로나 위기와 같이 우리 사회 다방면에 얽히고설켜 영향을 끼치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결의 얽히고설킴이 문제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

## 연결이 만들어주는 해법

크고 작은 변이를 가진 코로나바이러스들이 생존경쟁을 벌여 그중 일부만이 인간 몸속에서 살아남았듯, 각기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각국의 방식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광풍을 견뎌내고 있다. 인간사회가 이럴테면, COVID-19에 의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중인 것이다.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처는 여러모로 괄목할 만했다. 전 국민 가택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봉쇄조치를 내린 나라들이나, 마스크 착용조차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허용되는 나라들의 대처법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일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충안을 찾은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견이 많을 이러한 평가 또한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에 대한 판단일 뿐, 그 조치들이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다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동선 공개와 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치가 부지불식간에 폭력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등등, 곰곰이 따져볼 여유 없이 시행된 여러 정책들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지금 알기 힘들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같은 이슈들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나 진료 거부 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계에 가해진 과부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두려운 일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한국의 코로나 대처방식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면모가 많은 부분 연결과 소통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정부는 세세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의 노력을 해왔다. 또한 그것이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인터넷 덕분인지 또는 아직까지 다양성보다는 일치감을 편안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 때문인지는 몰라도, 확진자 동선과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관련 정보가 시민들 사이에서 빛의 속도로 공유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과 같은 정부의 시책들도 비교적 순순히 합의되고 지켜지고 있다.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된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팩트 체크 역시 비슷한 속도로 뒤따르며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가 식기를 반복한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비록 끊어짐의 위기에 처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한시라도 끊어지지 않으려 하는 노력이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COVID-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도 여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소통하고 있다. 작년 12월 우한에서 첫 대량발생 보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주만에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지도 분석이 끝나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개되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단백질 분자구조 데이터뱅크에는 현재까지 300개가 넘는 COVID-19 관련 단백질 구조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지난 9개월 동안 각종 저널에 게재된 COVID-19 관련 논문

수는 현재까지 12만 편이 넘었으며, 과학자들은 보다 빠른 정보교환을 위해 COVID-19 전문 아카이브나 프리프린트 논문 공유 사이트, 심지어 개인 SNS를 통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와 분석결과들을 공유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지만, 이런 노력들 바탕으로 COVID-19 치료제 개발 연구가 쉽없이 이뤄져 동물실험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백신의 경우 현재 9종류의 후보군이 임상 3상 실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신종 바이러스의 본질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을지, 개발중인 백신과 치료제 후보들이 효과적인 약물로 완성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이 샘솟기도 한다. © 영화 <로마>

### 우리가 정말로 다시 만나려면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만남과 연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점이다. 그 규칙은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일방적인 만남은 폭력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만남은 위험하다. 생존을 위함이라고는 해도 바이러스가 인간을 만나는 방식은 결국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바이러스의 폭력일 뿐인 것처럼. 혹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섬세한 연결의 규칙을 지키면서 긴밀히 기능하는 수많은

세포가, 그중 하나라도 연결의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일순간 암세포로 화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분간 모임을 멈추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불편한 일상을 감내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연결을 지속하기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의로부터의 연결을 끊어내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는 자신 스스로를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암적 존재로 발화하겠다는 우스운 천명과도 같다. 그 이유가 과학에 대한 불신이든, 정부에 대한 불호이든, 종교적 개인적 신념이든 무책임한 귀찮음이든 뭐든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주권 회복을 기념하는 날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일로 여겨야 할 집단이 보여준 행동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들이 보란 듯이 철저히 규칙을 파괴한 여파로 우리는 또 한차례 커다란 단절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타자화하기 쉬운 특정 집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변 혹은 우리 자신의 일상에서 그 규칙을 어기는 크고 작은 사례들을 본다. 그 작은 단절의 사례들이 모여, 큰 위기가 되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지해야 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연결되고 싶어 한다. 연결됨의 욕구는 생명체인 인간의 본성이다. 코로나로 인해 강제로 맞이한 언택트 시대에, 줄곧 사람들 사이에 단절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낳았던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이루고픈 연결에의 욕구가 바로 생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전과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나마 꾸준히 연결될 것이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전 세계의 수많은 누군가가 만나지 못해도 연결되는 방법을, 바이러스를 파훼하는 방법을 씬 없이 찾고 있기에.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해낼 것을 믿으며, 연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정한 연결의 규칙을 지키며, 그리고 끝없이 만남을 갈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야 한다. 이 사태가 끝난 후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은 것이 변한 후에도,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칼럼]

## 인간과 박쥐, 라쿤의 적절한 거리

: 코로나 시대의 인간-동물 관계

|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현대사회에서 인간-동물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염소, 돼지, 닭 등 동물의 내장과 피부를 표현한 이선환 작가의 '데드라인(Deadline)'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영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광 영역에서의 노동 전망은 밝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거주자 그리고 취약집단들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작되었지만, 인간 세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 전 세계의 피해 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앞으로 이런 피해는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차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피해와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

코로나19는 박쥐와 천산갑을 매개로 하여 중간 전파가 이루어진 인수공통전염병이다. 2000년대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의 경우 75% 이상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



는 연구도 있다.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모두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중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중간전파(스필오버, spillover effect)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근본 원인에는 생태서식지 파괴가 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저자 데이비드 콰먼은 “어떤 동물종이라도 새로운 숙주가 될 수 있지만, 호모 사피엔스인 경우가 가장 많다. 가장 자주, 가장 심하게 그들의 생태계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sup>1)</sup>라고 말했다. 제레미 리프킨 역시 이런 신종전염병의 발생은 기후변화, 생태 서식지 파괴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후변화가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논의<sup>2)</sup>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댐이나 농업, 도시화, 산림 황폐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것은 바이러스와 인간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서식지 파괴, 탄소배출, 기후변화, 인수공통전염병 모두 생태계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인류가 자연을 파괴해 개발한 곳에서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 개체 수가 2.5배 늘어난다<sup>3)</sup>고 한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갈 데 없는 동물들은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위험 역시 증가한다.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개발이다. 현재 지구의 생물체들은 지구 역사상 6번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년 안에 육지척추동물 중 500종 이상이 멸종<sup>4)</sup>될 것이라 한다. 이 또한 인간의 서식지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동물 간에는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각각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급속한 개발 상황에서 인간은 점점 야생의 공간을 파헤치고 있으며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점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같은 야생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야생동물 체험 카페 혹은 야생동물 밀수 및 거래 등 많은 접촉점이 존재하며, 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중간전파를 야기할 수 있다.

거리두기는 사람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자연과 분리되어 살아갔던 도시인들은 자연을 일종의 낭만의 공간으로 사유하며 야생과의 접촉을 갈구하는 측면이 있다. 라쿤 등 야생동물을 만져보는 실내카페, 파충류 체험 동물원, 그리고 회귀 동물을 애완동물로 사육 등이 대표적 예이다. 많은 도시인이 위험에 대해 무지한 채 야생과 접촉을 추구하기도 한다. 머나먼 나라의 밀림만이 아니라 한국의 도시에도 수많은 접촉점이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 중간전파가 시작될지 모른다.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경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동물로의 전파 역시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회복, 예방 대책은 눈 앞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 발생 원인에 대한 성찰 속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생태와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및 구체적 실행계획 역시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태 위기와 관련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그린딜에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등이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다.

전 세계적인 생태 위기가 인간-동물의 다차원적인 얽힘(entanglement)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브라질 열대우림의 파괴는 한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는 육류, 곡류와 연관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밀림 파괴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구적 차원의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연은 인간이 언제까지나 착취해도 좋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촘촘히 연결된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거자들이다. 지구별의 거주자는 인간만이 아니라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박쥐, 천산갑들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 말하고 있다. 서식지를 빼앗기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의 다양한 동식물들과 현대문명이 어떻게 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인 라쿤 등을 사육, 전시하는 '동물 카페'가 성행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서웨어

[칼럼]

## 우리 가족의 금기어는 '안전'입니다

|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 아내 김형숙 님

남편 동수 씨와 사려니숲길 탐방소에서 근무한 지 3년 6개월이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8월 24일은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 행사 시작 날이었다. 행사 기간이면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숲길을 피해 근무한다. 2년 전인 행사 때 일어났던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굳이 근무지를 벗어나 어딘가를 헤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다.

2018년 사려니숲길 행사가 열리는 어느 날이었다. 언론사가 주최한 이 행사 때는 사려니숲길 통제구간을 일부 개방한다. 우리가 근무하는 물참오름도 평소에는 출입을 통제하는데 이 기간에만 특별히 개방한다. 동수 씨는 행사 전에 미리 물참오름 코스를 올라 가봤다. 그런데 경사가 심한 데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깔아두는 야자매트를 고정하는 철심이 올라와 있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 보였다. 행사 며칠 전부터 동수 씨는 행사팀장에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날은 팀장이 영뚱하게 받아친 것이 화근이었다.

동수 씨는 단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팀장은 '당신이 나에게 따지는 거냐'며 돌연 짜증을 냈다.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서 행사장 입구까지는 4km가 넘는데, 동수 씨는 '당신 거기서 기다리랴'고 말한 뒤 곧장 입구로 뛰어 내려갔다. 내 힘으로는 동수 씨를 붙잡을 수 없어서 입구에서 근무하는 분에게 동수 씨가 화가 많이 났으니 팀장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뒤쫓아 갔다. 그때는 숲길에서 차를 탈 수도 없었던지라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내려갔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동수 씨보다도 한참 늦게 입구에 도착했는데도 동수 씨는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동수 씨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더니 동수 씨가 팔에 피를 줄줄 흘리며 오는 것이 보였다. 한 손에는 깨진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무서워서 접근을 못 했고, 행사 관계자들도 모두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때 동수 씨가 숲길이 떠나갈 정도로 외쳤던 말.

**“나는 세월호에서 사람을 구하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괴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해서 세월호를 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내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하라고 했을 뿐인데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동수 씨는 깨진 유리병의 날 선 부분을 배 쪽에다 갖다 대고, 행사 책임자를 불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동수 씨가 더 이상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 손에 들린 병을 빼앗았다. 그제야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동수 씨를 달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응급처치를 했다. 동수 씨는 안정이 됐지만 행사 책임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급히 응급실로 가니 유리병이 손등을 관통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나는 이 남자의 신경이 손상될지도 모를 손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깊이 남을 상처가 더 걱정됐다. 다음 날 수술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안정을 찾기로 했다. 나는 탐방소 담당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동수 씨 상황을 이야기하고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 책임자가 사과하는 제스처라도 취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안 그러면 동수 씨는 계속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분노를 담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행히 과장님이 언론사 책임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나는 여전히 봄마다 찾아오는 그 행사를 떠올리면 악몽을 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된다가에 마음을 놓았는데, 다시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담당 주무관에게 우리는 행사 기간 동안 한라산 둘레길을 탐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요청했다. 지난해는 주차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마주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동수 씨가 너무 예민해 했고, 옆에서 나도 덩달아 긴장이 되어서 힘들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지면서 행사는 취소됐다. 일단 안심은 되었지만, 내년에 행사날이 다가오면 나는 다시 그날처럼 걱정하겠지.

여름이 오기 전 동수 씨는 새벽마다 사려니숲길 10km를 걸으며 예초작업을 한다. 낮에 예초를 하면 길에 있는 돌이 튀어서 오가는 탐방객들이 위험할 수 있다며,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새벽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서 탐방 시간 전에 마무리한다. 사실 예초작업은 동수 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숲에 뱀들이 있어서 탐방객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하는 일이다.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오지랖을 부리는가 생각도 든다.



예초, 말벌집 제거 중인 김동수 씨의 모습. ©김형숙

요즘은 정자 주변에 말벌들이 집을 짓는다. 보통은 119를 불러 말벌집을 처리하지만, 동수 씨는 그것도 직접 나선다. 119가 숲길에 오는 사이, 다른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지 못한다는 게 동수 씨의 생각이다. 어떤 날은 집을 치우다가 말벌로부터 머리를 세 번이나 쏘었는데도 괜찮다고 했다. 이제는 말벌집 제거 전문가가 다 되었다.

동수 씨는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상이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를 보거나-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 숲길 앞에 불법주차를 한 것을 발견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때도 많다. 8월 25일은 제주에 태풍주의보가 내려 숲길이 전면 통제됐다. 그런데도 일부 탐방객들은 통제를 무시하고 숲길 안쪽까지 올라온다. 그럴 때면 동수 씨는 더욱 예민해진다.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동수 씨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는지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다. 본인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세월호를 탔다. 안전하다고 믿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그 배에 몸을 실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버스나 비행기를 타면서 나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의심조차 하는가. 그랬던 세월호에서 엄청난 참사를 당했다. 평생

지고 가지 못할 마음의 짐이기에 남편의 '안전'에 대해 유독 예민하게 구는 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성인이 된 큰딸은 지금도 겁이 많지만 어릴 때는 더 그랬다. 무언가를 처음 볼 때 무서워서 쉽게 만지지도 못했다. 그럴 때는 내가 그것을 먼저 만지고, 안전하다는 확신을 준 후에 딸에게 시도하게 했다. 어쩌면 동수 씨에게도 어릴 때 내가 딸에게 했던 것처럼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믿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가, 사회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소식]

## 세월호 아버지가 6년간 써내려 간 1100쪽 기록

| 고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님

지난 7월, 세월호 단원고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님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책을 출간했습니다. 1100쪽에 달하는 이 책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세월호 기록을 6년간 밤낮으로 붙들고 읽어 내려간 끝에 나온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과제를 “왜 침몰 시켰는가”, “어떻게 침몰 시켰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가”로 확정하고, 이것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죽은 아들이 나에게 부여한 마지막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것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하지만 아들과 진실을 향한 나의 행군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박종대,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중

지난 6년간 박종대 님의 일상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였습니다. 9월 1일 현재까지 38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중 공개 통지를 받은 것은 2, 30%입니다.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거나, 알 수 없다는 답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는 국가기관 앞에서 박종대 님은 또 한 번 국가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법원에 해당 책의 인쇄,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종대 님이 보안이 필요한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종대 님은 사참위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아들 박수현 군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지난 6년간 모은 세월호 기록이 꽂혀 있다. ©박종대

않았습니다. 박종대 님은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며 참사 피해자로서 재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불쏘시개가 되고자 덤벼든 이번 싸움에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싸움을 두려워했다면, 기록은 사참위 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편안하게 쉬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못한 자료라도 공개하라고 투쟁도 하겠지요. 그래서 선제적 공격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 노력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글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명분으로 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저는 철저히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할 것이고 다만 저는 그때까지는 최대한 침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은 멈추고 싶지는 않군요. 책이 원형대로 유지되어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하는 것이 못한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020.8.9. 박종대 님 페이스북 글 중



[라이브톡]

## "디지털에는 없는 하드카피만의 '아우라'를 발견했다" : '종이 기록'의 의미

| 진실의 힘 자원활동가

올여름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진실의 힘이 진행한 조작간첩 사건 소송기록의 디지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섯 개 사건의 재심, 형사보상, 손해배상 기록은 약 2만 1천 쪽에 달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탄원서에는 간첩으로 조작돼 긴 세월 옥살이를 했던 이의 울분 섞인 메모와 밀줄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받아 든 변호사와 활동가는 오타 하나, 여백 하나까지 외울 만큼 철저하게 기록을 헤집으며, 단 하나의 고문과 간첩 조작의 증거도 놓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무죄’ 그 자체인 조작간첩 사건의 종이 기록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자원활동가들은 매일같이 세월의 흔적에 누렇게 변색된 진술서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넘기며 스캔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9명 자원활동가 구민채, 김동민, 김세민, 박채연, 심민지, 양유진, 윤성민, 임은지, 포민철과 함께 ‘기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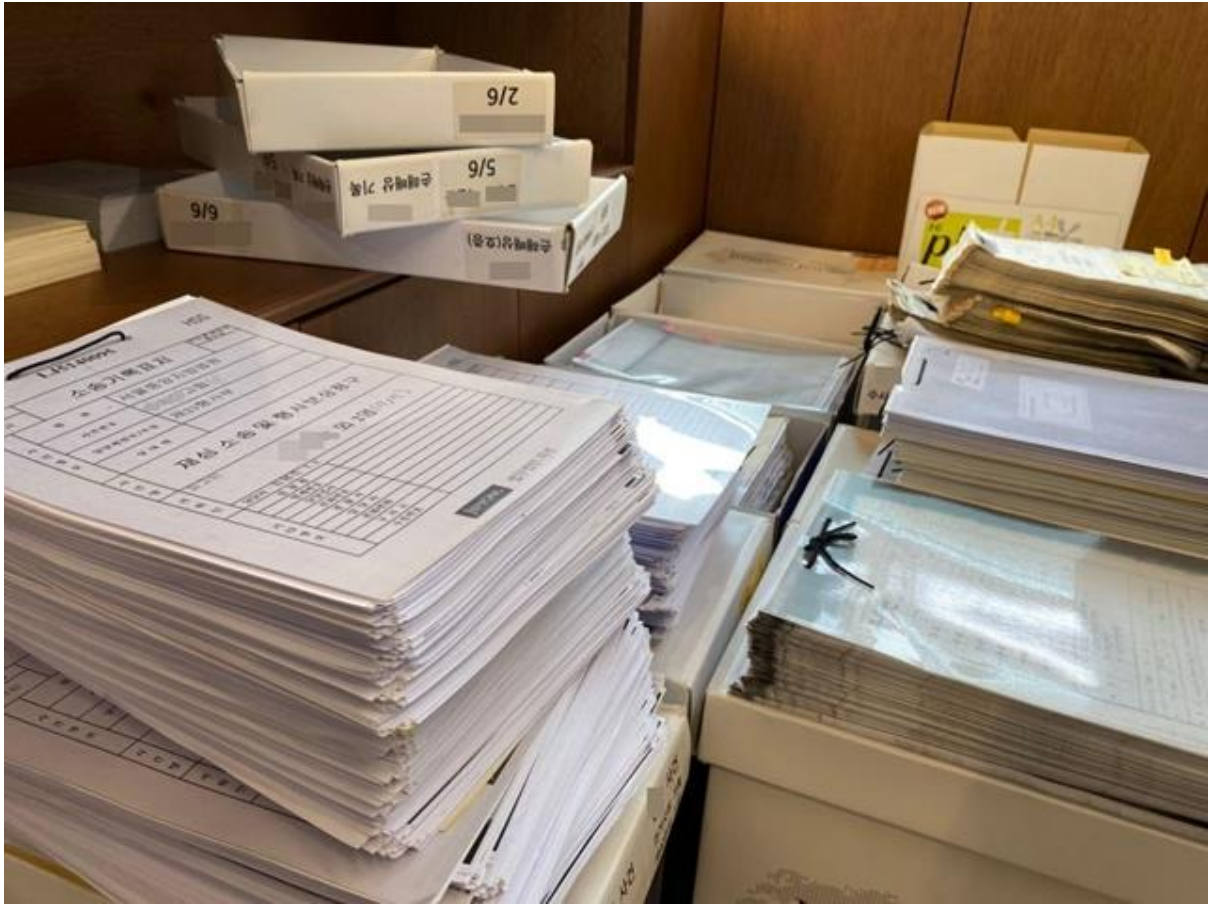
**조작간첩 사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 잘못 손대면 금세 찢어질 것 같은 기록 앞에서 긴장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은지: 일단 양에 압도됐어요. 그런데 오래전 기록임에도 유실된 부분 없이 잘 정리된 것을 보고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의 노고가 느껴졌어요.

유진: 양에 압도됐다는 은지 언니 말에 동의해요. (웃음) 간첩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맞서 진실을 추적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물질적 증거가 되는 기록을 눈으로 보니 수십 년의 투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휘갈겨 쓴 손글씨와 종이 곳곳에 찍힌 지장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어요. 그래서인지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더욱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세민: 저도 양을 보고서 ‘헉!’하고 놀랐어요. 어려운 법률용어와 옛날에 사용된 말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고요. 타자기 폰트나 당시 사람들의 정갈한 국한문 혼용체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들기도 했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기록의 외관을 눈으로 다 뜯어보고 나서야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민: 양에 놀랐다는 것에 공감해요. 이렇게까지 많은 기록을 생산하며 간첩을 만들었던 수사기관 등의 노력이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기도 했고요.



자원활동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방대한 양의 기록! ©진실의 힘

민철: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장면, 장면들이 그려졌어요. 종이 기록으로 봐서 그런지 그 장면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고요.

민채: 고고학 전공이라 박물관에서 수 천 년 된 유물을 자주 만져본 터라 오히려 누렇게 바래거나 찢어진 종이 자체는 친숙했어요. 세민과 같은 기록을 보는데 ‘한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어떻게 읽고 이해해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함이 컸죠. 그런데 기록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해놓은 부분 위주로 보기 시작하니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감 잡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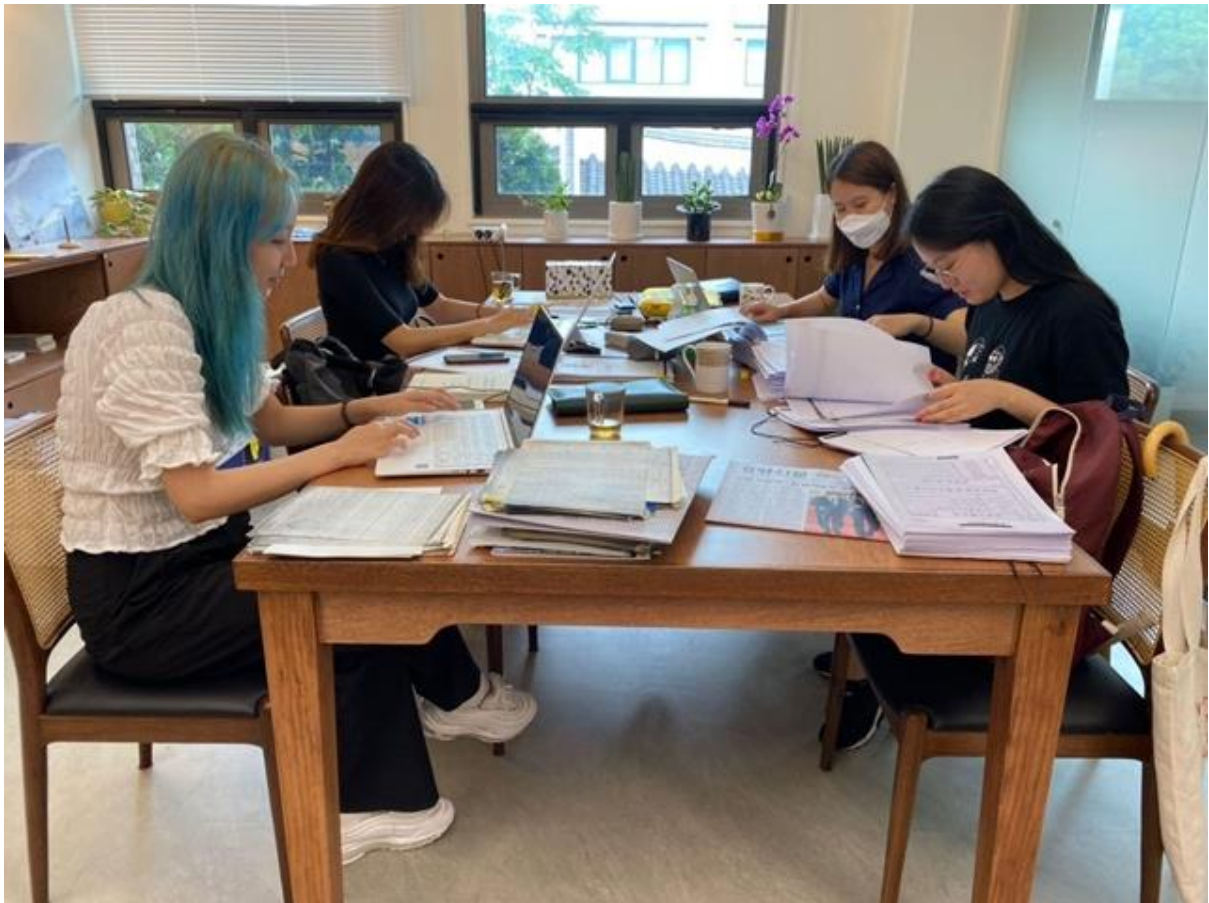
민지: 저도 방대한 양을 보고서 기록이 담고 있는 긴 시간과 오랜 싸움의 흔적에 놀랐어요. 한편으론 이 기록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사건에 한발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내 앞에 놓인 기록과의 ‘물리적 거리감’이 서로 상충해서 긴장됐나 봐요.

동민: 다들 비슷했네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사실이 와 닿았어요.

민채: 재심부터 손해배상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읽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은데, 이를 수십 년 동안 겪은 당사자 선생님들과 가족들의 아픔은 감히 상상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80년대가 아닌 90년대, 심지어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법정 투쟁이 계속되는 걸 보며 국가의 폭력이 나와 동떨어진, 분리된 세계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채연: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기대하게 됐어요. 기록을 정리하고 나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남을까, 누가 보게 될까,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이것은 어떻게 사용될까 하는 궁금증, 기대감이요.

민채: 맞아요. 누가 이 기록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정말 공감해요.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채연, 성민, 세민, 민채. ©진실의 힘

**언제부터 기록에 익숙해졌다고 느껴요?**

세민: 정리 방법과 요령이 익숙해진 후에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제야 당시 진술서를 받는 과정, 장소 등에서 경찰의 회유라든지 당시의 정황이 보였

고요. 기록 중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썼는데, 사법경찰관이랑 검사가 말만 잘하면 별일 없을 거라고 그랬다고 해요.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읽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채: 저도 그 진정서를 인상 깊게 기억해요. 검찰의 회유나 협박도 드러났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결백하기만 하면 무죄가 후에 입증되리라는 자신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국민은 국가 사법 체제를 믿었는데 국가 사법 시스템은 결국 무고한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고 진실을 외면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죠. 그런 점에서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나 검사의 신문도 마찬가지로 아쉬웠어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재판인데도 정작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은지: 몇 가지 인상 깊은 지점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국가의 무자비하고 계획된 폭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읽기에도 버거운 양의, 매우 조리 있게 정리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아주 단기간에 작성됐다는 점(나라면 절대 하루 안에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서 한 마디로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도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작성된 문서 그 자체가 앞서 긴 시간의 고문이 있었고, 누군가가 진술서의 내용을 불러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민: 피해자 분들이 작성하신 글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몇 십 년 전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도 인상 깊었지만, 피해자분들이 재심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 사건기록에 대해 직접 작성한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몇 기록에는 피해자가 그 어놓은 수많은 밀줄, 메모가 가득 차 있었어요. 피해자 스스로 과거의 일을 되짚어 보면서 떠올린 억울함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빼곡한 기록물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 재심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된 최후 진술서를 읽어보면 문장 하나하나에 그분의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다른 어떤 기록물들보다 더 눈이 가고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민철: 저도 선생님의 진술서, 메모들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기록 여기저기에 글들을 써넣으셨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기록을 읽는데, 수사관들이 과거 자신이 서명한 수사 기록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명한 것은 맞지만 직접 (고문 등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당시 일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을 때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민채: 가장 엄정하고 정확해야 할 수사기록에 추측성 발언이 너무 많다는 것이 충격이

있어요. 재판 기록 중에 수사기관이 당시 실종된 인물에 대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필경 남파간첩이 되었으리라'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전체가 그 불확실한 가정 하나에서 출발한 거죠.

채연: 맞아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옳음이 증명되는 게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도 기록을 통해 배웠어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성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게 '사실'도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유지되는 어떤 시스템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진실의 힘 김영희 교수님 강연에서도 언급됐던 것인데, '밀양 할매'들이 탈송전탑 운동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당사자와 소수자의 의견은 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작간첩 사건이 발생한 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한 무력감도 느껴지고 무섭기도 해요.

지금도 다른 형태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져요. 업무 전에 각자 맡은 기록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했지만, 사건 흐름을 이해할 시간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정보를 따로 찾아본 적이 있나요? 기록 정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민: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검색을 했는데 가장 많이 검색한 건 한문이고, 다음은 법률용어였어요. 이 두 가지가 처음 자료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난감했어요.

채연: 양이 방대하다 보니, 하나하나 다 읽지 못해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사건의 개요나 과정,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봤어요.

동민: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들었지만 확실히 문서를 정리하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정보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진화위 보고서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세민: 저는 자원활동가들의 인터뷰나 사건 관련 기획 기사를 찾아본 적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료를 정리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원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나 타인의 사정을 들여다볼 때면 나도 모르게 타자화를 할 때가 많은데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건 온전한 공감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활동가나 피해자들의 구술인터뷰를 살피면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다잡게 돼요.

은지: 저는 일을 시작할 때쯤 사건을 몇 개의 기사로 먼저 살펴봤어요. 선명하게 기억

에 남는 것은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두 차례나 파기환송을 하고도 결국 스스로의 판결을 뒤집은 점, 즉 대법원이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백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참담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었어요. 또 무죄 판결 당시의 시사인 기사가 인상 깊었어요. 기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자 왜 왔냐고 화를 내고 의심하는 모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고,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82년 당시 간첩조작 사건을 열심히 홍보했던 주요 언론이 오늘날 그 지면에서 무죄 판결 소식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회의 품격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는 증언하고 고발해야 하고, 고통 속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자를 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기록을 잘 정리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민채: 모든 아카이빙이 그렇듯 ‘이 기록을 나중에 누군가는 꼭 보겠지’하는 생각으로 해요. 나중에 이 기록을 접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파일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나름의 기준도 생기고요.

세민: 맞아요 특히 당사자가 많을 때면 파일명에 어떤 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할지 더 고민돼요.

채연: 자료의 양에 압도되는 것만큼 우리 파일 목록의 아름다움에도 압도되고 있어요. (웃음)

유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피의자마다 사건기록 목록과 인지동행보고가 나오고,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번갈아 나오고, 수사결과 보고서로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이제는 기록을 안 보고도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요. 또 기록 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초반에는 스캔하는 것보다 기록 끈을 다시 묶는 데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은지: 맞아요 거의 자동으로 습득됐어요.

유진: 은지 언니와 저는 이제 기계처럼 기록 끈을 묶을 수 있어요.

은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지! (웃음)

세민: 기록 끈, 쉽지 않습니다. 과거 수예부 했던 짬도 울고 도망갈 기록 끈 묶기! (웃음)



이제는 기계처럼 기록 끈을 빠르게 묶을 수 있다는 유진(왼)과 은지(오). ©진실의 힘  
여러분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 종이 기록을 접할 기회가 많진 않을 텐데, 디지털 시대의 종이 기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기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세민: 디지털 데이터들도 문서에 붙여둔 누군가의 메모, 낙서 등을 그대로 남길 수 있지만, 그 기록을 오래 들여다봤을 이의 고민과 떨림이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종이 기록에 남겨진 메모나 밑줄이 그 느낌과 정보의 중요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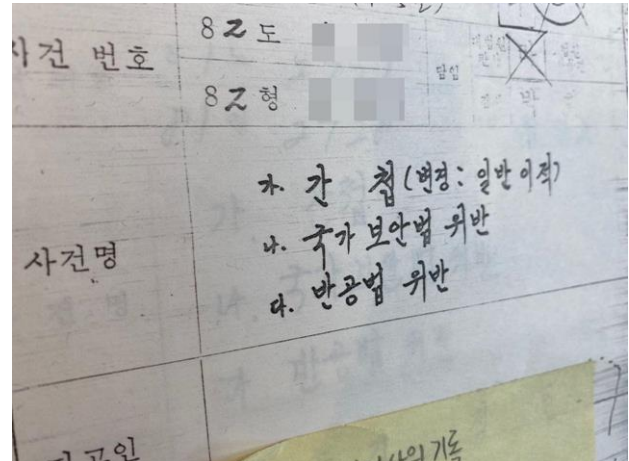
민철: 종이 기록물이 아닌 PDF 파일로 접했다면 수사, 공판과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종이 기록물들을 보고, 영화에서처럼 80년대에 고문을 당한 후 허위 자백을 강요받는 선생님들이 떠올랐거든요.

은지: 저도 하드카피 기록이 디지털 기록물과 다른 것은 생생함을 전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생함을 통해 피해자들의 울분과 당시의 부조리함이 보는 이에게 절절히 전달되고요.

민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물을 대할 때도 복제품이 아닌 원본을 더 귀중하게 여기듯 디지털화된 글자들과는 다른 하드카피만의 아우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거쳐 간 사람들의 손길이, 필체가, 직인이 뚜렷이 남아있고 그 종이  
가 거쳐 온 세월 자체가 주는 느낌이 하드카피의 가치가 아닐까요.

채연: 저도 그 생생함 때문에 보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의 힘 박물관을 만  
들 순 없을까요. 그만큼 의미가 큰 기록이거든요.



기록 공간은 진실의 힘의 오랜 꿈입니다. (웃음) 그렇다면 기록을 보기 전후로 여러분  
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기록을 통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민: 기록을 보기 전후의 생각이 같아요. 가능한 기록을 잘 정제해서 더 많은 사람에  
게 알리면 좋겠어요. 지난 학기에 국가보안법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 재판기록과 판  
결문 열람이 거의 허용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거든요.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도 없고  
파주 법원도서관에만 있더라고요. 별다른 수확 없이 옛 신문 기사와 국회 회의록만 조  
사해서 마무리했어요. 진실의 힘에서 그 모든 자료를 보니 엄청 반가우면서도, 한편으  
론 공개되지 않는 기록에 화도 나오.

은지: '간첩'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농담처럼 별거 아닌 말처럼 혹은 우스꽝스럽게 사  
용되고 있잖아요. 간첩조작 사건은 젊은 세대에게 생경한 주제다 보니, 그냥 멀게만  
혹은 과거 독재정권 당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저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기록을 정리하면서 그 사건들이 실재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실물 기록  
을 접하면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발생한 일이고, 그 기억과 상처는 결코 과거의 문제만  
은 아님을 확신한 것이에요. 피해자의 상처는 여전한데 사회적 반성과 사과는 아직 충  
분히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채연: 동감해요. 여전히 전기 고문이 개그 소재로 등장해서 고통받는 연기를 하고, 그  
걸 본 사람들이 웃는 게 무서워요.

세민: 저도 이런 농담과 개그에 더욱 불편함을 느껴요.



성민: 진실의 힘 활동은 나를 허물고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요. 언론에서 과거사를 접했을 때는 몇 초간의 분노를 느낀 게 전부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의 힘에서 활동하며 단발적 분노에서 나아가 당사자에게 더욱 공감하고, 이것이 그저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우리가 정치 권력과 사법부를 날카롭게 감시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번에 기록에서 피해자들의 서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수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동민: 평소 조작간첩 사건을 포함한 국가폭력 사건을 생각할 때, 피해자보다는 국가권력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사법기관을 비롯해 다른 기관에서 구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 사회, 제도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실의 힘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이번에 기록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겪었을 억울함이나 분노, 개개인 사연 등에 더욱 눈이 가요.

채연: 이런 자료들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네'라고 느끼도록 도움을 줘요. 당장의 변화는 없겠지만, 추후에 유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기록들이 어떻게 정제되고,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꼭 눈으로 직접 봤으면 해요.

민채: 기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알고 나니 뭔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이 대항할 수 없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을 마주하니, 누구나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기록의 전말이 널리 세세하게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민: 맞아요. 국가권력이 개인을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연: 누군가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 자행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삶 자체가 파괴될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간첩조작 사건 기록은 한 개인, 한 가족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민채: 기록의 존재가 곧 진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의 힘'은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해자들이 국가폭력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부정해도 이 기록만 들춰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기록이 피해자들에게는 힘든 고통이고 기억일 테니 공개에 관해서는 신중해야겠죠.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동민: 과거의 국가폭력 형태가 변화한 현재, 기록은 일종의 역사적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경계석, 그리고 행어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의 해결과 치유를 위한 교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채: 공감해요. 고문이 가시적으로 자행되던 그때 당시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을 국가체제라는 거시적 구조의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들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록물을 보존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후원회원 인터뷰]

##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 있기를"

| 이상민 후원회원

진실의 힘의 가장 든든한 뒷배는 후원회원님 한 분, 한 분입니다. 금액과는 무관하게 매월 마음을 담아 후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신 이상민 변호사의 이야기는 더욱 감사했습니다.

한국일보("후원금 유용 논란에도...내가 기부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기사에 소개된 이상민 변호사는 5년간 일하던 대형로펌을 나와 2015년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를 만들었습니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처럼 PC나 모바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평소 관심을 두고 지켜보던 단체 중에서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필요로 하는 곳을 기부 대상으로 고른다고 합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는 금세 알 수 있어 고민 없이 후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재단법인 진실의 힘입니다.

**SBS 권지윤 기자의 추천을 받아서 진실의 힘 후원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권지윤 기자님과는 SBS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진행자와 게스트 관계로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기부 이야기가 나왔고, 기자님이 '진실의 힘이라는 곳이 있다. 알고 있느냐. 뜻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니 기부처로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검색을 했고 활동내역을 살펴본 후 즉시 소액 기부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SNS에 기부 내역을 포스팅했을 때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해당 포스팅을 읽고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요. 한국일보 기사("후원금 유용 논란에도...내가 기부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나왔을 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인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노릇이겠지요. 기부 내역을 포스팅하는 경우는 드문데 100만 원 이상의 다액 기부를 하는 경우 다른 분들의 기부를 독려하고자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팅하곤 했지요. 다른 기부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하지 못하여 알 수 없지만, 포스팅 댓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부처'를 사람들이 찾으려 하는구나 라는 추측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그렇고 진실의 힘 인터뷰도 그렇고 이게 누구한테 공개하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이라서요. 한국일보 기사는 따로 포스팅을 하지 않은지라 인터뷰 여부 자체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와이프도 몰라요. '일회성 기부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단체가 오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회원에게도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취지가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인터뷰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어 고민 없이 후원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상민 변호사의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인을 통하거나 추천을 받습니다. 처음 기부를 시작했던 재단법인 동천은,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만든 공익재단법인이었습니다. 공익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동천 구성원들과 알고 지냈기에 이분들이 하는 일과 금원의 용처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후원을 했던 단체들 역시 변호사들이 공익사업을 전담하여 진행해 왔던 곳이었으며, 구성원분들의 면면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후원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오히려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가는 원동력”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후원했던 단체가 어디였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동천, 그리고 제 모교(고려대학교) 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 사업 모토 중 하나는 'provider가 지치는 서비스는 오래갈 수 없다'입니다. 후원은 받는 사람, 받는 단체에게 힘이 되어야 하지만, 후원자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기부하고 나서 까먹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은 후원'이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쿨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동천이나 고려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쿨한 사이를 지킬 수 있었던 관계랄까요.

**진실의 힘 등 정기후원하는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나요.**

아니요. 기본적인 활동 기조만 살펴볼 뿐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쿨한 관계가 되려면 오히려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힘이 어떤 활동을 하든 지금의 모습을 잃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득이 되면 되었지 독이 될 일은 없겠지요.

**후원회원으로서 진실의 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교과서 꼬트머리에 나오는 재심 파트. 한 번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소명을 해야 할지 교과서에서는 서른 페이지 남짓 되는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

해당하고 허위 자백을 통해 ‘빨갱이’로 낙인찍힌 수십 년의 고통은 교과서의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진실의 힘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지난한 고통, 정권 옹위를 위해 용공 분자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그 시절을 이 사회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가는 이 시대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일, 그런 일을 곳곳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머물러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0  
진실의 힘  
인권활동 지원사업

# 인권으로 연결하다

정치·경제·사회적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피해자 구제—재발방지

코로나19 구조적 폭력—불평등—인권

중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코로나  
구조적 폭력  
불평등  
인권

**공모기간**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24:00 까지

**공모대상** 인권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  
(자세한 요건은 지원사업 신청서 참조)

**공모주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연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구조적 폭력과 불평등 또는,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부각될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또는 연구

**지원내용** 최소 금액 제한 없으며 최대 1천만 원 (관리운영비, 인건비 포함 가능.  
단, 지원 금액은 선정 과정에서 조정 가능)

**심사일정** 사무국 및 선정위원회 심사 10월 중 (필요시 심황조사 진행)  
최종 결과 발표 11월 20일

**심사기준** 진실의 힘 설립목적과 지원사업 주제에 부합하는 지 여부,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 지원자·단체의 자격과 역량,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

**지원방법** 진실의 힘 홈페이지 ([www.truthfoundation.or.kr](http://www.truthfoundation.or.kr))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기획안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접수 및 문의** 진실의 힘 사무국 02-741-6260  
[truth@truthfoundation.or.kr](mailto:truth@truthfoundation.or.kr)

진실의 힘이 첫 번째 지원사업 <인권으로 연결하다>를 진행합니다. 진실의 힘은 유엔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인 매년 6월 26일, 진실의 힘 인권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10회를 맞는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권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대신 진실의 힘의 설립목적에 맞는 인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 인권으로 연결하다 - 진실의 힘 인권활동 지원사업

2. 공모 주제

-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연구 지원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구조적 폭력과 불평등 또는,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부각될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또는 연구 지원

3. 공모 대상 | 인권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

- 법인격이 없거나 미등록단체(임의 단체 포함)도 지원 가능
-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복지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예산 중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3분의 1이상인 단체

4. 지원 내용

- 사업비 최소 금액은 제한 없으며 최대 1,000만원(관리운영비, 인건비 포함) 지원. 단, 지원금액은 선정 과정에서 조정할 가능
- 총 지원규모는 2,000만원 (총 지원사업 숫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

5. 지원 방법 안내

1)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기획안  
제출서류는 모두 한글 맞춤법과 우리말 문법에 맞게 작성해주시요.

2) 접수 방법

- 공모기간: 2020년 9월 30일 (수) 24:00
- 서류제출: 진실의 힘 홈페이지([www.truthfoundation.or.kr](http://www.truthfoundation.or.kr))에서 신청서와 기획안을 다운로드, 작성하신 서류는 진실의 힘 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요. 제출시 아래의 형식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신: [truth@truthfoundation.or.kr](mailto:truth@truthfoundation.or.kr)  
제목: [인권으로 연결하다] 사업명 000 (지원단체 OO)  
예: [인권으로 연결하다] 플랫폼 사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노동연구소)

3) 심사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서류 접수	9월 30일	
서류 심사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진실의 힘 사무국 심사
서류 심사 결과 통보	10월 20일	개별연락
선정위원회 심사	10월 말	선정위원회 심사 필요에 따라 실황조사 또는 면접심사 진행
최종 결과 발표	11월 20일	홈페이지 공고 / 개별연락
지원협약식	11월 중	
결과 보고	사업 종료 시	사업 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

#### 4) 심사 기준

##### - 심사 방법

진실의 힘 사무국의 서류 심사 후 선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황조사 또는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심사 기준

진실의 힘 설립 목적과 <인권으로 연결하다> 사업취지에 비추어 지원사업 선정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 지원자/단체의 자격과 역량,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지

## 진실의 힘 홈페이지 개편

진실의 힘이 홈페이지를 개편 중입니다. 디자인 변화 뿐 아니라 모바일 연동이 가능하며, 공지사항, 새 소식을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새 홈페이지는 9월 중순 공개합니다.

## 진실의 힘 후원회원

### ① 2020년 7, 8월 후원회원

7월 234분, 8월 236분이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셨습니다.

### ② 새 후원회원 님, 반갑습니다!

김시현 김소연 이춘희 님